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임재 /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크신 내 주님 (Our God) / 은혜 아래 있네 / 은혜로다	다같이
대표기도		전하영
*성경봉독	시 107:23-32	지상희
말씀	환난 날을 지날 때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 하나님이지어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 하나님이지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	---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	---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환난 날을 지날 때(시 107:23-32)

23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30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느니라 31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32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라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5권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그 중 5권을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5권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가적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적인 107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배를 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23-24). 그래서 그는 인생을 배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모든 어부들이 그렇듯, 그도 평온한 날씨를 기대하며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광풍이 일어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번째 목상 포인트가 나오는데, 즉, 광풍의 근원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편 저자는 명확하게 광풍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5). 인생의 풍랑은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련도 보게 됩니다. 그의 시련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주의 백성에 대해 사탄이 시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내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하나님과 사탄이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알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같은 방법(테스트)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환란은 하나님 외에도 사탄, 세상, 악한 사람, 사람의 실수, 자연법칙과 우연 등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환란이 주의 자녀에게 올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환란으로 우리를 치실 때는 무섭게 치십니다. 저자는 이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옳이 받은 시련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옳1장). 그 정도 시련이 오면 그것은 진짜로 인생의 풍파이며, 하나님의 통제권 외에서는 이런 일이 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광풍이 일 때 우리가 여호와께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28절).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 흐트러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아줍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던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로 바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내 부모임을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영적 효과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꾸미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 붓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추가로, 부르짖는 기도는 잊혀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환란날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부여받고 드리는 기도는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의 눈과 귀를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약속을 부여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자가 풍랑 속에서 주께 부르짖자 드디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환란 날에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평온한 마음과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바로잡으시기 원하신 부분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님은 다시금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풍랑을 일으키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환란의 뜻을 알고,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간이 타락하여 죄가 만연하다보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환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를 C.S. Lewis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합니다.

옳의 경우에는 그가 죄가 있었다기 보다는,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로 치닫지 않도록 미리 환란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란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으며,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산책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 때에 불평 불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펼쳐진 쓰나미와 같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주신 목적인 이루어지면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사랑 넘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라”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영적 정렬’이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의 목적인 것입니다.

환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비록 많이 힘들지만, 환란을 성숙의 기회로 바라볼 줄 아는 AKPC 공동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내게 있는 환란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2. 환란의 때를 지나며 나는 충분히, 솔직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붓고 계신가요? 그랬다면, 이를 통해 얻은 영적 유익은 있었나요?
3. 설교 말씀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다 적용해도 역시 환란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정호)



현장팀 신청 QR

일대일 양육 훈련 동반자 모집

문의 : 추재욱/ 이순희 집사 (soonhoe.lee@gmail.com)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캠프기간 : 7월 10일~28일(3주간)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 문의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토요한국학교 교사 모집

2023년 가을학기 학생 등록 및 교사진 모집(유급)
문의 및 지원: 김효진 집사(hellozini@gmail.com)

생명의 삶 6월호

권당 5불

교역자 동정

김준섭 담임목사 휴가(6/12-6/18)
이강현 목사 휴가(6/6~6/27)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